### 조용병 회장 영장기각… 檢 무리한 경제인 수사 다시 논란

# 잡아넣어야 제대로 수사? 구속만능에 사라진 인권

**무리한 수사 법리공방 불가피**

**기업은 경영 위기·총체적 피해**

11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회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촉이 맥없이 무너지자 애시당초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검찰의 '표적수사'가 해(年)를 넘어서까지 기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벌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반(反)기업 정서를 부채질하면서 기업인은 마치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듯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에선 무리한 수사로 장시간의 법리공방이 불가피해 기업의 경영상 위기와 전략적 차원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용법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조 회장이 임원 자녀 등의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하게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남녀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도 수사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따라 조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는 점, 피의 혐의에 대한 신중한 판단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남발…금융권까지**

일각에선 기업에 대한 검찰의 영장남발 수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잇단 영장 기각이 있었고 KB금융 윤종규 회장,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은 전 산업군을 겨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삼성그룹을 위시해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대표 기업이 압수수색이라는 사정당국의 철퇴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이 지난 4월부터 '노동조합 활동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삼성을 상대로 압수수색한 횟수만 총 8차례에 달한다.

한진그룹 조사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에서 시작돼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조양호 회장에게 적용된 서울남부지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 및 법무부 수사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진그룹 일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법·사정기관은 경찰과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한진그룹 본사와 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한 횟수는 총 18회에 달한다.

일부에선 경제인에 대한 '모욕주기식'의 수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 등 위법 여부를 냉철하게 규명하고 합당한 처분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따른다. 또 과잉 수사는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 한 번 압수수색을 당하면 며칠동안 업무가 마비되는 등 경영상 타격이 크다"며 "수사 대상으로 오르는 기업의 글로벌 기업 평판에도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신한, 영장 기각에도 노심초사**

신한금융은 조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기소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선례를 보면 조 회장 불구속기소돼 형사피고인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기나긴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최고 경영자가 재판 단계에서 장기간 동안 공판에 출석할 경우 기업은 주기적인 최고경영자의 부재를 겪어야해 경영상 부담도 커진다.

실제로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로 했던 조 회장의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금융계 일각에선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 승인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채용비리 혐의는 신한은행 12건 외에 신한생명 6건, 신한카드 4건이 있어 검찰이 신한생명·신한카드 등 다른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 '辛의 귀환' 다시 뛰는 롯데지주

#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목표가 ⬆

**증권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호텔롯데 상장 재개 '최대 이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후 롯데지주의 지배구조 개편이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대되는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로는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계열사 처분, 비상장 계열회사의 순차적 상장, 계열사들의 부동산 개발, 중장기적으로 호텔롯데 상장 및 롯데지주와의 합병 등이 있다.

NH투자증권은 11일 롯데지주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순자산가치(NAV) 모멘텀이 지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6만1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롯데지주 아래 상장 예정인 계열사〉 (단위: 십억원, %)

| 계열사 | 장부가 | 지분율 | 비고 |
|---|---|---|---|
| 롯데로지스틱스 | 103 | 36.2 | 롯데의 수익가치 평가기준 |
| 롯데글로벌로지스 | 99 | 15.2 | |
|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 34 | 54.4 | |
| 코리아세븐 | 269 | 79.7 | |

*주: 장부가 및 지분율은 2018년 6월 말 기준. /자료=DART·한국투자증권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중 상장 예정인 기업〉

| 계열사 | 비고 |
|---|---|
| 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 | • 6월 1일부로, 롯데쇼핑의 시네마사업본부가 분할되어 '롯데컬처웍스'로 독립<br>• 종합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br>• 롯데쇼핑의 100% 자회사 |
| 호텔롯데 | • 1973년 설립<br>•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지분 19.07%) 외 L 투자회사, 패미리, 부산롯데호텔 등이 지분보유<br>• 면세사업부, 월드사업부, 리조트사업부 4개의 독립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관광서비스 기업 |

/자료=DART·한국투자증권

롯데지주는 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에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주식을 각각 410만1467주, 386만3734주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매입으로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의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롯데 유화사들이 지주로 편입된다.

김동양 연구원은 "롯데케미칼 지분 인수대금은 단기차입(2조3500억원)과 롯데건설 지분 8.6% 전량 매각(2033억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롯데건설 지분은 롯데케미칼에 처분해 롯데케미칼의 롯데건설 지분율은 35%에서 44%로 올랐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지배구조 개편과 동시에 롯데지주는 자사주 10% 소각을 결정해 주주가치를 제고했다"며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NAV 모멘텀이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호텔롯데의 상장이다. 호텔롯데는 그룹의 핵심인 데다 일본 롯데와 종속관계에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으며 일본 롯데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L투자회사(72.7%), 광윤사(5.45%) 등 특수관계인도 일본 주주들로 이뤄졌다. 한국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는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38.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롯데도 8.6%를 갖고 있다. 신 회장은 2015년 형제의 난 여파로 국내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자,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 후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호텔롯데가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추진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롯데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작년 10월 우선 롯데쇼핑·제과·칠성·푸드 등 4개 상장 계열사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 분할과 합병을 통해 그룹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를 출범시켰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은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에 복귀함에 따라 롯데지주의 지주회사체제 완성을 위한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지주회사체제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호텔 및 화학부문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하기 위해 1차적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위한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kmh@

---

# 롯데하이마트, 롯데렌탈 지분 전량 매각

**호텔롯데에 57만6690주 처분**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에 속도를 낸다. 계열사 지분 정리를 통해 지주사 가치를 제고 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하이마트는 호텔롯데에 롯데렌탈 주식 57만6690주를 456억1300원에 장외 처분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처분후 롯데하이마트의 지분율은 0%다.

신동빈 롯데회장이 복귀하면서 호텔롯데가 상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이다.

롯데 측은 호텔롯데 상장이 중요하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가 지난 2016년 이후 연기되고 있는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으로 롯데그룹을 향한 시선이 나빠지자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의 계획을 내놨다. 이듬해 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자 호텔롯데는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롯데호텔 상장은 미뤄지고 있었다.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19.0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롯데홀딩스다. 여기에 L투자회사(72.7%), 광윤사(5.45%)가 소유한 지분을 더하면 호텔롯데의 지분 97.22%가 일본계법인의 손에 있다.

업계는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고 호텔롯데 지분율을 높여야 지주회사 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롯데쇼핑·푸드·칠성·제과 등 4개 상장 계열사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합병하며 롯데지주를 출범시켰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리더스옥션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